칼 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신뢰!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쌓아가기는 힘들지만. 왜 무너질까? 욕심 때문이다. 성서에도 있잖은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욕심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가증스럽고 부질없는 욕망이. 비양심적 사고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얕보기 때문이다. 이런 불량 사고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의 타고난 기질적 요인도 중요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버린 부정적 사고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일수록 이중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당연히 페르소나가 판을 친다. 이율배반적 행위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모함도 잘한다. 이러면서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엽기적 살인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인간들처럼.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인 경향이 많다. 결국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서의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기에 악이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런 부류들이 신앙을 갖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악랄한 정치인들을 비롯한 기업가, 관료,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등. 심지어는 직접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대부분 기복신앙이 많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부자 또는 승진, 각종 시험에 합격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러니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인지하기나 하겠는가. 그래서 주변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자아에만 도취되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사자의 미소에도 진실이 없지만, 이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부정적 진면목을 알기 때문이다. 헛된 욕심이 자기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임에도.

사실 인류의 급진적 발전은 불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사용하거나 방심하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양날의 칼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춤을 추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어둠과 부정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타 소각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은 모두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자.

항상 지금이 인생 최고의 절정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나 자신의 이해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아파트 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다치고 42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에는 인천과 서울 노원구 등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또는 구조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음력 3월 19일)

48년생 먼저와 나중의 순서를 알아보자.68년생 분명한 상승세 거침없이 가보자.72년생 기억에서 사라진 초심을 찾아내자.84년생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그려진다.96년생 아무지고 강하다. 평가를 그려보자.

49년생 허물없는 사이도 따질 건 따져내자.61년생 쉽게 하는 허락 금방 후회가 된다.73년생 산 넘어 산이어도 포기는 금물이다.05년생 아직은 적응중 먼곳을 봐야한다.97년생 부족한 부분은 사랑으로 채워가자.

50년생 까다로운 시험 합격점을 받아낸다.62년생 싫어도 좋은 척 표정관리 해보자.74년생 만세가 불려지는 소식을 들어보자.86년생 경사중에 경사 춤추고 노래하자.98년생 낮은 자세 겸손 기회가 되어준다.

51년생 반가운 얼굴 묵은 회포를 풀어보자.63년생 주머니 두둑하니 만사가 편해진다.75년생 자신감 결여 백기 들어 항복하자.87년생 책 한권 쓰여진 자랑이 생겨난다.99년생 움츠려있던 어깨 기지개를 펴보자.

52년생 맞다 하는 확신 뿌리를 내려보자.64년생 별 고운 만남 애정 꽃이 피워진다.76년생 자유롭지 못했던 동거를 끝내보자.88년생 비 온 뒤 땅이 굳듯 각오를 다시 하자.00년생 꾸미거나 보태면 책임을 크게 한다.

53년생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보자.65년생 만족스러운 거래 도장을 찍어내자.77년생 감동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두자.89년생 미움도 원망도 바람에 실어내자.01년생 수고로운 노동이 가치를 더해준다.

54년생 성취감과 보람 하늘 높이 날아보자.66년생 먼저 헤아리고 품으로 안아주자.78년생 시작은 초라해도 끝은 화려해진다.90년생 위기가 기회다. 맞장구를 쳐보자.02년생 스스로의 노력 보석처럼 빛나진다.

55년생 맞다 하는 확신 의심없이 가야한다.67년생 언제라도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79년생 이루지 못한 꿈에 날개가 달려진다.91년생 열정과 패기 큰 그림을 그려보자.03년생 흥미로운 제안 같은 편이 되어주자.

56년생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져보자.68년생 여기저기 부름 걸음을 재촉해보자.80년생 손해다 싶으면 보따리를 싸내자.92년생 좋다하는 표현 아낌없이 해야한다.04년생 간절함을 더해야 허락을 받아낸다.

57년생 멍석 깔린 자리 능력을 뽐내보자.69년생 바짝 긴장으로 실언을 막아내자.81년생 패배를 모르는 승부사가 되어보자.93년생 급하면 안 된다. 기다림을 더해보자.05년생 가난이었는 상처 새살이 돋아난다.

58년생 두둑한 선물에 박수는 덤으로 온다.70년생 나쁘지 않은 성적 시험을 마쳐보자.82년생 편히 가자 유혹 손사래 쳐야한다.94년생 의리도 우정도 땅으로 묻어내자.06년생 열심히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 가자.

47년생 익숙한 장소에서 조심을 더해보자.59년생 음으로 양으로 가르침을 받아보자.71년생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자.83년생 충분히 잘해왔다, 상을 받아보자.95년생 더 넓은 세상으로 걸음을 걸어보자.

기고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덧 한낮에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는 푸른 숲, 들꽃, 신선한 공기 등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지속된 산불은 수많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으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배치하여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며 올해부터는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빠르게 출동하여 초동진화하기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전남산애감시원'36명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로부터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라는 말이 있듯, 산불은 한 번만 발생하여도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에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번지면 산불로 이어집니다.

둘째,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담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영광의 푸른 숲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영광군 부군수 송광민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ex 한국도로공사 | 50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